

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준6 제1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RFLP의 과학적 원리와 DNA 증거의 증거능력

지문 평가

(가)에서는 DNA 분석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나)에서는 DNA 증거가 실제로 채택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구성의 통합 지문이다. 정보량의 밀도도 적당한 편이고, 파악해야 하는 독해 요소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Keyword

(가) 과학 - 생물학 - RFLP

DNA, 엑손, 인트론, 돌연변이, RFLP, 제한 효소, 인지 부위, 반복 염기서열 부분, DNA 증거

(나) 사회 - 법학 - DNA 증거

증거재판주의, 자유 심증주의, 증명력, 증거능력, DNA 증거, 감정 제도, 프라이 기준, 도버트 기준, 과학적 방법

(가) 문단 1 DNA 인트론의 특징

- 1) **DNA**는 네 종류의 염기인 아데닌(A), 티민(T), 구아닌(G), 시토신(C)이 배열된 긴 염기 서열들로 이루어져 있다. DNA의 10% 정도를 차지하면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인 **엑손**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이 비슷하지만, 별다른 기능이 없는 나머지 부분인 **인트론**은 사람마다 꽤 다른 편이다.

▶ DNA 염기 서열은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엑손'은 쓸모가 있지만 '인트론'은 딱히 쓸모가 없다.

	엑손	인트론
유전 정보	○	×
특징	사람마다 비슷함	사람마다 꽤 다름

- 2) 서열에서 염기가 바뀌는 **돌연변이** 시에 인체의 복구 기능은 엑손에서 곧바로 작동하지만 인트론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염기 서열을 이루는 특정 염기가 교체되는 현상을 '돌연변이'라 한다. 돌연변이가 '엑손'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곧바로 복구된다. 실제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염기가 달라지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목 ▲ 반면 '인트론'에서는 돌연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제대로 복구되지 않는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쓸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트론'은 사람마다 꽤 다른 편이다.

- 3) 서열이 인트론에서 많이 다르다는 점은 **제한 효소 절편 길이 다형성(RFLP)**이라는 DNA 분석 방법에 활용된다.

▶ 이때 'DNA 분석 방법'은 DNA의 염기 서열을 토대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 지문의 초점은 'RFLP'라는 특정 DNA 분석 방법으로 좁혀지고 있다. RFLP로 DNA 분석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집중하자.

(가) 문단 2 인지 부위의 절단과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

- 1) **제한 효소**는 그 종류에 따라 특정 염기 서열인 **'인지 부위'**에 결합한 후 그 부위 내에서의 정해진 두 염기 사이를 절단한다. 예컨대 EcoRI는 인지 부위인 GAATTC를 찾아 결합한 후 G와 A 사이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이다.

▶ 주어진 예시를 활용하여 이해하자. 제한 효소 'EcoRI'의 인지 부위는 'G/AATTC'로 분리된다.

- 2) RFLP는 DNA의 인트론에서 분석에 용이한 부분들을 시료로 추출한 후 제한 효소를 가하는 방법이다.

▶ 'RFLP'에 대한 요약적인 서술이다. 여기서 'DNA의 인트론에서 분석에 용이한 부분들'은 특정 제한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인지 부위'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한 효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 3) 해당 시료에서의 염기 서열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동일하다면 RFLP를 사용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서열 조각들의 길이와 개수가 사람들마다 동일할 것이다.

▶ 서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출했다라도, 만약 시료의 염기 서열이 동일하다면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서열 조각들의 길이와 개수'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제한 효소가 동일한 부위에 결합하여 절단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시료에 포함된 인지 부위에 염기 하나만 바뀐 상태라도 절단이 일어나지 않아, 만들어지는 서열 조각들의 개수가 줄고 길이가 긴 조각도 포함된다. 반대로 염기 하나가 바뀌어 인지 불능 부위가 인지 부위로 바뀐 상태라면 그 부위에서 절단이 일어날 것이다.

▶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인트론에서는 많은 경우 돌연변이가 복구되지 않아서[문단 2] '인지 부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 EcoRI의 인지 부위인 GAATTC가 돌연변이로 G'C'ATTC로 바뀌고 복구되지 않았다면[→ '인지 불능 부위'가 되었다면] 절단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GCATTC가 돌연변이로 G'A'ATTC로 바뀌고 복구되지 않았다면[→ '인지 부위'가 되었다면] 절단이 일어날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대부분 보존된다는 인트론의 특징으로 인하여 RFLP를 사용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서열 조각들의 길이와 개수'가 사람들마다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 부위 ↑ ⇨ 서열 조각들의 길이 ↓, 서열 조각들의 개수 ↑

- 5) 한편 인트론의 특정 부위에는 **'반복 염기서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특정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가 사람마다 태생적으로 2~7개 정도로 다르다. 그래서 시료의 동일한 인지 부위에서 동일하게 절단된 경우라도 만들어지는 조각들 중 '반복 염기서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길이를 지닌다.

▶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르면 인트론의 서열은 돌연변이에 의해[→ '후천적으로'] 사람들마다 달라진다. 그런데 인트론은 '선천적으로'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다. 이는 '반복 염기서열 부분'의 반복 횟수 때문이다. 즉 서열 조각들의 길이는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반복 염기서열 부분의 반복 횟수 ↑ ⇨ 서열 조각들의 길이 ↑

(가) 문단 3 RFLP의 동일한 판별

- 1) 이렇게 돌연변이의 발생이나 반복 염기서열의 반복 횟수 차이로 인해 사람들의 DNA에서 동일한 부분을 시료로 추출했다라도, RFLP로 만들어지는 조각들의 개수나 길이에서 차이가 생긴다.

▶ 문단 2까지 설명한 내용의 요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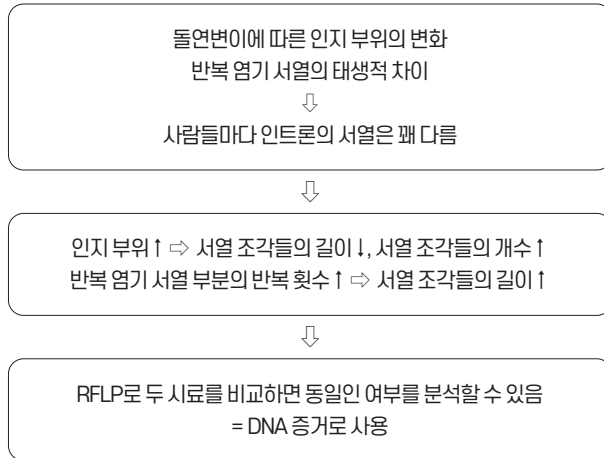
- 2) 물론 두 사람에게서 결과가 동일한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인트론에서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추출하여 RFLP를 시행하면 두 사람에게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10억분의 1 정도로

낮다. 그래서 그 결과는 두 시료가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 판단하는 **DNA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물론 두 시료의 동일한 인트론 부분에 시행한 RFLP 결과가 동일할 확률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래서 RFLP는 하나의 인트론 부분이 아닌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목 ▲ 확률이 매우 낮아졌을 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정도면 충분히 RFLP의 결과를 믿을 수 있다는 의미다.

➡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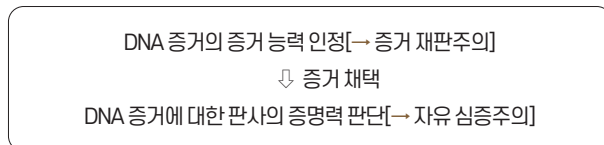
(나) 문단 1 증거 능력과 증명력

1)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서의 사실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 재판주의**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을 판사의 자유 판단에 일임하는 **자유 심증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 재판에서 사실이 인정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에 관하여 '증명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인 **증명력**을 판단하려면 먼저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증거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상의 자격인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은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맥락 읽기 ▼ 통합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가)에서 이해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나)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가)의 마지막에 언급되었듯 'DNA 증거'는 두 시료가 동일한 사람의 것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의 문단3-2]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증거 능력'은 '증명력'과 별개의 문제이다. 즉 증명력이 높다고 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의 초점은 'DNA 증거가 어떻게 증거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맞춰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고, 증명력에 대한 판사의 판단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문단 2 DNA 증거와 감정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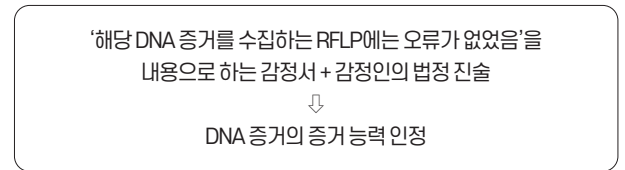
1)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증거 수집 과정에 오류나 수정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DNA 증거**는 과학적 원리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증명력이 높은 편임에도, 그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류'가 없어야 하는데, 'DNA 증거'의 경우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증거 능력을 따지기 어렵다].

2) 더구나 그 판단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이 판사의 증거 능력 판단을 돕는 **감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감정의 결과물이 감정서의 형태로 법정에서 제출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감정인이 법정에서 진술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 증거 능력을 판단하려면 수집 과정에서의 오류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감정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설명이다.



3) 그런데 이 규정은 감정 과정과 그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을 때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감정 제도의 입법 의도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며, 증거 능력 판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 그러나 감정 제도를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즉 감정 제도가 증거 능력의 판단에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감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따질 수 있다].

(나) 문단 3 과학적 증거의 증거 능력 판단 기준

1)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과학적 증거의 증거 능력 판단을 위한 미국에서의 기준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그중 **프라이 기준**에 의하면 과학적 증거를 얻기 위해 사용된 과학적 기법이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일반적 승인을 얻은, 표준적인 것이어야 한다.

맥락 읽기 ▼ (가)를 고려하여, 'RFLP의 시행으로 얻은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의식하면서 읽어 나가자.

➡ 감정 제도를 증거 능력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울 수는 없으니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프라이 기준'에 따르면, (가)의 'DNA 증거'가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된 RFLP가 관련 과학자 집단의 일반적 승인을 얻은 표준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기준은 증거 채택의 권한이 과학자 집단에 완전히 위임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

➡ 그러나 이는 증거 능력의 판단을 사실상 과학자 집단에게 맡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비록 증명력처럼 증거 능력이 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 시스템 안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지이다.

3) …… 1990년대 이후 **도버트 기준**에 의해 대체되었다. 도버트 기준에 의하면, 판사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과학적 방법'을 따랐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과학적 방법'이란 관련 지식이 반증 가능한 것인지, 동료의 평가를 거쳤는지, 측정 기법의 알려진 오류율을 감안했는지, 과학자 집단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을 말한다.

➡ 그 대안으로 도입된 '도버트 기준'은 판사로 하여금 RFLP가 과학적 방법인지를 충분히 따지도록 한다. 즉 증거 능력의 판단과 관련하여 '판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다.

➡ 여기에는 '측정 기법의 알려진 오류율을 감안했는지'도 포함된다. 이는 RFLP에 10억분의 1의 확률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진다는 뜻이다[(가)의 문단3-2].

주목 ▲ 또한 '과학자 집단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본래 프라이 기준에서는 이 요소를 고려했는데, 도버트 기준에서는 이 요소를 포함하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다만 여기까지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미국 내의 기준이다. 즉 1990년대 이후 도버트 기준에 의해 프라이 기준은 배제되어도 이는 미국의 사정이지, 우리나라의 사정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문단 4 DNA 증거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

1) 우리나라에서는 유죄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서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대체로 인정해 온 편이다. 1997년 법원은 폭행 혐의와 관련한 DNA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검사 기법이 당시의 표준적인 것이어야 할 것과 '과학적 방법'을 따랐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자에는 프라이 기준이, 후자에는 도버트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례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프라이 기준, 도버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 DNA 검사 기법이 표준적인 것인가? ⇒ 프라이 기준
- DNA 검사가 '과학적 방법'을 따랐는가? ⇒ 도버트 기준

참고 ▼ 다만 도버트 기준은 사실 프라이 기준을 이미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단3-3]. 그러한 면에서 두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해당 판례의 입장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판사의 의도까지는 알 수 없으나, 두 기준이 공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 다만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DNA 분석 결과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이와도 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목격자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그런데 해당 판례에서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으면서도[→ 해당 DNA 증거를 채택했음에도] 유죄가 아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증명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문단4-2], 판사가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증거 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의 자유 판단에 따라 '증명력'이 낮아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가

1) '갑'의 강도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사는 범인의 DNA와 '갑'의 DNA가 일치한다는 '을' 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 감정 결과가 제출되었지만 그것만으로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 능력은 증거 수집 과정이 적법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 오류나 수정이 없어야만 인정된다[(나)의 문단2-1]. 이때의 오류 여부는 (나)의 문단4-1)에 비추어 판단될 것이다.

2) ①심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갑'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②심 법원은 역시 '을' 연구소가 사용한 RFLP가 과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후 유죄를 선고했다.

➡ '1심 법원'은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는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감정 과정과 그 분석 결과에 오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당연히 감정인의 법정 진술까지도 이루어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래야만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2심 법원'도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RFLP가 표준적인 것으로 일반적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프라이 기준을 적용한 판결이다.

3) 하지만 ③심 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해당 DNA 증거에 대한 분석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2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그런데 ③심 법원은 2심 법원의 판결을 DNA 증거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이는 '과학적 방법'을 따랐는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도버트 기준과 관련이 있다.

<보기> 문단 나

1) 인트론의 특정 부분들은 염기 서열이 TGCC인 부위를 포함하는 것과 TGCA인 부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는 제한 효소 X는 이 중 TGCC에 결합하여 G와 C 사이를 절단한다.

➡ 제한 효소 X를 활용하여 RFLP를 시행하면 해당 부분에 'TGCC'가 있는지, 'TGCA'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그런데 한국인들의 경우 해당 부위들에 TGCA가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그곳들 대부분에 TGCC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서양인들의 경우에는 인트론의 특정 부위에 TGCC가 존재하면 X가 그 부위에 결합하여 서열 조각들의 개수가 늘어난다[(가)의 문단2-1]. 반대로 TGCA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열 조각들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X를 활용한 RFLP를 시행하여 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다.

➡ 문제는 서양인들의 경우와 달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X를 활용한 RFLP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TGCC가 존재하기 때문에, X를 활용한 RFLP를 시행하여 두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다. 지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DNA 분석 결과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이와도 일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나)의 문단4-2].

∴ 이렇듯 ㉔의 '사실'은 X를 활용한 RFLP가 오류 가능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도버트 기준에 비추었을 때 해당 DNA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㉔번 선지는 적절하다. 다만 이러한 오류 가능성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다. 도버트 기준에서는 어디까지나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지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퍼스의 실용주의 격률

지문 평가

지문의 구성에 주목한다면 '근대 철학자들의 관점과 퍼스의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 더 나아가 '실용주의 격률'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까지도 이해해 보자.

Keyword

인문 - 현대 철학 - 퍼스, 실용주의 격률

본유 관념, 감각 경험, 주관주의, 회의주의, 퍼스, 실용주의 격률, 실천 결과, 데카르트, 회의의 방법, 연쇄적인 연역 추론, 실험

문단 ① 근대 철학자들의 진리 탐구

- 1) 진리에 이르는 탐구 방법에 관한 근대의 논의에서는 경험과 이성이라는 두 지식 원천이 강조되었다. 그중 무엇을 강조하든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는 **본유 관념**이나 후천적으로 얻는 **감각 경험**처럼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주관적인 것**에 대한 진술로부터 시작하는 추론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진술을 얻으려 하였다.

▶ 우리는 경험을 통해 '감각 경험'을 후천적으로 얻거나, 이성을 통해 '본유 관념'을 선천적으로 갖는다.

▶ 감각 경험, 본유 관념 모두 '주관적인 것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는데, 근대 철학자들은 이로부터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진술']에 이르고자 했다.

주관적인 본유 관념, 감각 경험 ⇨ 객관적인 진리

- 2)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진리가 탐구자의 주관에 의존한다는 **주관주의**나, 객관적 진리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회의주의**를 낳는다.

▶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의 방법은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객관적인 실제' 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에서 한계를 갖는다.

- 3) 이를 극복하고자 한 **퍼스**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에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과학의 방법에 주목하고, 철학을 포함한 모든 탐구 영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퍼스'는 근대 철학자들의 방법으로는 객관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고 '과학의 방법'으로써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단 ② 실용주의 격률

- 1) 퍼스는 먼저 탐구 과정에서의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논쟁이 불명료한 개념에서 유발된다고 보고, **명료한 개념**을 얻는 방법인 **'실용주의 격률'**을 제안하였다. 이 격률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이 언급하는 속성을 갖는 대상이 어떠한 '실천 결과'를 낳는지를 떠올려 봄으로써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다. **실천 결과**란 우리의 경험에 어떤 실제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퍼스에 따르면 진리에 이르는 탐구 과정에서는 먼저 '명료한 개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것이 '실용주의 격률'이다.

맥락 짚기 ▶ 다만 지금과 같은 설명만으로는 해당 격률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대부분 예시를 제시하는 만큼, 주어진 예시를 최대한 활용하자.

- 2) 예컨대 어떤 대상이 무게가 있다는 것은, 떠받치는 힘이 없다면 그것이 아래로 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실용주의 격률에 따르면 이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실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개념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정된다.

▶ '실용주의 격률'을 적용한 예시다. 앞선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무게'를 갖는 대상은 떠받치는 힘이 없다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실천 결과를 낳는다.

↓

'무게'의 의미가 명료하게 파악된다.

▶ 더 나아가 이렇게 '명료한 개념'만이 의미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개념들은 모두 무의미하다.

실천 결과를 낳는 개념 ⇨ 명료한 개념 ⇨ 유의미한 개념

문단 ③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과의 비교

- 1) 퍼스는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과학의 방법이 지닌 우월성을 밝히면서 실용주의 격률의 기능도 규명하였다.

▶ 앞서 '탐구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면, 이제부터는 '탐구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맥락 짚기 ▶ '데카르트의 방법'과 비교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을 구분하여 '퍼스의 방법'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우리가 보는 대상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데 카르트는 **'회의(懷疑)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꿈꾸고 있거나 악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거나 하는 상상의 상황에서조차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찾는 방법이다.

▶ '우리가 보는 대상'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시작점이 결국 '주관적인 것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이다[문단-1]. '우리가 보는 대상'이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과 실제로 같은지 혹은 다른지를 알 방법이 없는 이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카르트는 '회의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믿음'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 3) 데카르트는 이를 통해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어 가는 **'연쇄적인 연역 추론'**을 통해 다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회의의 방법'으로 끝없는 의심을 반복하다 보면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를 전제로 삼아 연역 추론(=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추론)을 반복적으로 거치면, 마찬가지로 참인 '다른 지식'들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의의 방법 ⇨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
⇨ 연역 추론 ⇨ 새로운 지식 1 ⇨ 연역 추론 ⇨ 새로운 지식 2
⇨ 연쇄적인 연역 추론 ⇨ ……

주목 ▶ 데카르트는 설명 '주관적인 것에 대한 진술'에서 출발하더라도 '회의의 방법'을 거치면 참일 수밖에 없는,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로부터 '연역 추론'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 다만 데카르트가 '회의의 방법'을 통해 도달한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데카르트는 회의의 방법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도출했는데, 여기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시작점으로 삼아 연역 추론을 거쳐 얻은 다른 지식들은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그러나 퍼스에 따르면 회의의 방법은 온전히 수행될 수 없다. 우리의 탐구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편견들을 모두 제거한 채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의의 방법이라는 단 하나의 절차로 편견들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탐구의 시작 단계에서는 편견들이 의심의 대상으로 생각되지도 않는 것이다.

- ▶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에 대한 퍼스의 비판이다. '퍼스의 탐구 방법'과도 관련이 있을 테니 어느 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회의의 방법'이 성립하려면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을 전부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편견'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 그러나 퍼스에 따르면 편견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회의의 방법'을 통해 얻은 믿음은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된다.

문단 4 퍼스의 탐구 방법

1) 퍼스는 앞선 연역 추론의 결론이, 뒤따르는 연역 추론의 전제가 되는 방식으로 이어진 '연쇄적인 연역 추론'에 대해, 그중 하나라도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있다면 전제가 오류에 빠진다는 점에서 오류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추론이라고 비판한다.

- ▶ 퍼스의 또 다른 비판이다. '연쇄적인 연역 추론'은 앞선 연역 추론으로부터 얻은 결론을 다시 전제로 삼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추론에 오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얻은 모든 지식들이 오류가 되고 만다. 그래서 '진리의 탐구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2) 이와 달리 과학의 방법을 따르는 실제 과학에서의 추론은 그 속에 다양한 방식의 세부적인 추론들이 서로 긴밀히 얹혀 있어서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도 가진다.

맥락 짚기 ▲ '과학의 방법'을 모든 탐구에 적용하자는 것이 퍼스의 주장이다 [문단1-3].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퍼스의 방법'이 제시될 것이니 의식적으로 데카르트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주목하자.

- ▶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은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오류에 빠진다[→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할 수가 없다]. 반면 '퍼스의 방법'은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실험**이며, 실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설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 실용주의 격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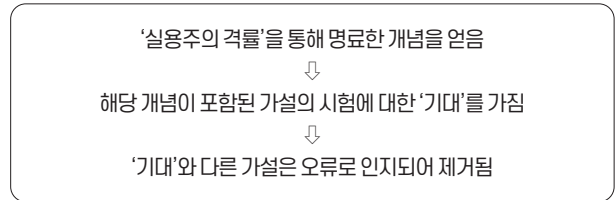
- ▶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은 '실험'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실험에 필요한 정보[→ 명료한 개념]로서 '가설'의 의미를 명료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격률'이다[문단2-1].

4) 실용주의 격률을 통해 우리는 물체가 무게를 지닌다는 가설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통해 시험될 수 있음을 안다. 실험을 실제로 시행하였을 때, 기대와 일치하는 실험 결과는 가설을 지지하겠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실험 결과는 가설을 반박한다. 반박된 가설은 우리에게 의해 오류로서 인지되어 제거된다.

- ▶ '실용주의 격률'에 의해 우리는 '무게'라는 개념의 명료한 의미를 알 수 있다 [문단2-2]. 즉 '실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물체가 무게를 지닌

다는 가설'은 시험 가능하다[→ 떠받치는 힘이 없을 때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실천 결과'를 낳는지를 시험할 수 있다].

주목 ▲ 그리고 개념의 의미가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가설이 사실이라면 실험에 의해 어떤 '실천 결과'를 낳을지를 알고 '기대'를 가질 수 있다 [→ '물체가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실험을 거치면 그 가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성립하는 것이다.



문단 5 퍼스의 결론

1) 퍼스에 따르면 과학의 방법을 사용하는 탐구자는 단지 감각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

- ▶ 이때의 '수동적인 관찰자'는 '근대 철학자들의 방법'에 따라 진리 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주관적인 것에 대한 진술'에 시작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문단1-1].
- ▶ 데카르트의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방법으로는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 편견들을 전부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문단3-4], 추론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문단4-1].

2) …… 실험을 통해 세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자이다. 이러한 개입은 수동적인 관찰에 비해 인과 관계에 대한 더 정확한 객관적 지식을 제공한다. 퍼스는 우리가 과학의 방법을 통해 오류를 제거하고 탐구 공동체 속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 퍼스가 주장하는 '과학의 방법'은 '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지식, 곧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단4-2]. 그리고 여기서 실험되는 '가설'의 의미는 '실용주의 격률'에 의해 명료해진 것이다[문단4-3].

<보기> 분석

<보기>문단

1) '실재'라는 개념은 지식론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이다. 근대 철학자들은 흔히 '실재'를 ㉠ 우리가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맥락 짚기 ▲ 주어진 <보기>는 분명 '퍼스의 설명'인데 '근대 철학자들의 설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 '실재'에 관한 ㉠의 정의는 근대 철학자들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주관적인 것'에 대응한다. 그런데 '실재'는 그로부터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는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에 대응하는 설명이다[문단1-1].

- ▶ 같은 이유로 데카르트는 '우리가 보는 대상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문단3-2].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의심할 수 있는 믿음'을 모두 제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찾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회의의 방법'이다.

∴ 근대 철학자들이 내린 ㉔의 정의는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회의의 방법'을 실행해야만 하는 이유이지, 실행 불가능함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따라서 ㉑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 하지만 '실재'는 진리인 문장에서 언급되는 대상임에 틀림없으며, 이때의 '진리'는 ㉑ 탐구 공동체가 세계에 대해 충분히 탐구하여 합의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근대 철학자들이 아닌 피스가 정의한 '실재'의 의미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문장에서 언급되는 대상 그 자체가 바로 '실재'라는 설명이다. '객관적인 세계'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진리'에 관한 ㉔의 정의도 역시 피스의 것이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탐구 공동체는 과학의 방법을 통해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문단5-2].

3) 한편 근대 철학자들은 '실재'를 ㉑ 우리의 감각과 믿음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의는 결국 '실재' 자체를 경험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끔 한다.

➡ ㉔의 정의는 '실재'에 대한 근대 철학자들의 것인데, 다만 ㉔의 정의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바이다. '실재'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점은 그것이 우리의 '감각과 믿음'을 촉발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각과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대 철학자들의 방법에 따르면 주관주의나 회의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문단1-2].



[14~17] 예술

오르피즘의 새로운 미의식

지문 평가

'오르피즘'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구현하고자 동원한 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유파에 영향을 미친 '미래주의'와 '큐비즘'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대표적인 오르피즘 화가를 토대로 '과학적 색채 이론'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도 요구하고 있다. 예술 지문임에도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 복잡적이고 다양해서 잘 뜯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Keyword

예술 - 서양 미술 - 오르피즘

오르피즘, 미래주의, 큐비즘, 색면, 들로네, 「창」 연작, 계시대비, 유사 보색

문단 1 오르피즘의 등장 배경

1) 20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기계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급성장하였다. 당시의 현대화된 도시 공간에서 느껴지는 역동성과 속도감은 새로운 미감을 추구하는 유파들을 낳았는데, 오르피즘이 대표적이다.

➡ '오르피즘'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이다. 즉 '오르피즘'은 도시 공간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표현하고자 한다.

2) 오르피즘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오르페우스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색채를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리듬감'이라는 표현을 '역동성', '속도감'과 관련짓고, 오르피즘이 '색채'에 주목했다는 점까지 잘 챙기고 넘어가자.

문단 2 큐비즘을 차용한 미래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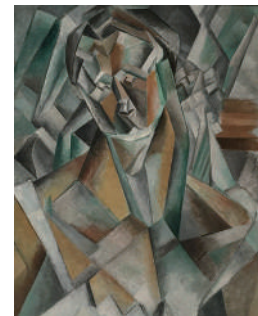
1) 오르피즘의 등장에 앞서 도시의 현대성에 먼저 주목한 유파는 미래주의이다. 활발한 움직임과 변화를 현대성의 실체라고 본 미래주의 화가들은 ……

▶▶▶ **백략 짚기** ▲ 지문의 초점인 '오르피즘'을 다루기에 앞서, 비슷하게 '도시의 현대성'에 주목한 또 다른 유파인 '미래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 …… 사물을 분해한 후 새로운 형태로 조합하는 큐비즘의 화풍을 차용하였다.

➡ '큐비즘'은 미래주의에 영향을 준 또 다른 미술 유파다. 이들의 등장 순서는 다음과 같다.

큐비즘 ⇨ 미래주의 ⇨ 오르피즘



피카소, 「여인 좌상」

3) 다만 이들은 사물을 분해하는 한편, 시간에 따른 움직임이나 변화의 양상을 한 화면에 담아 동시성도 추구하였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동물의 다리가 아주 많아 보이는 것과 같이, 움직임들을 시간에 따라 분해한 후 한 화면에 늘어놓아 속도감을 묘사한 것이다.

▶ **큐비즘과 구분되는 '미래주의'만의 특징이다.** 큐비즘의 화풍을 차용하여 사물을 분해했지만 이들은 특히 사물의 '움직임'을 분해했고 그것을 하나의 화면에 나열하여 '속도감'을 묘사했다.



세베리니, 「무용수」

4) 여러 방향에서 본 사물의 외관을 모아 대상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려 한 **큐비즘이 정적인 화풍**에 머문 것과 달리, 미래주의는 파편화된 형태들을 반복 나열하여 움직임과 속도는 물론이고 대상에 내재한 역동적인 힘까지 표현하려 한 것이다.

▶ **미래주의는 기법상으로는 큐비즘의 방법을 활용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드러내고자 했다.** 미래주의가 주목한 '현대화된 도시 공간'의 미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큐비즘	미래주의
사물을 분해 새로운 형태로 한 화면에 조합 정적인 화풍	사물을 분해 형태 변화를 한 화면에 반복 나열 속도감과 역동성 표현

문단 ③ 색채 변화에 주목한 오르피즘

1) 오르피즘 화가들 역시 [큐비즘이나 미래주의처럼] 사물을 분해하였지만, 형태보다는 색채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 **맥락 짚기** ▶ 중심 화제인 오르피즘에 대한 설명이 본격적으로 나온다. 특히 미래주의와 구분되는 지점을 염두에 두며 읽어 나가자.

▶ **큐비즘의 기법은 미래주의, 오르피즘 모두 차용했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오르피즘도 미래주의와 마찬가지로 현대화된 도시 공간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표현하고자 했다[문단2-1].** 그런데 미래주의가 '형태 변화'를 반복 나열하여 그것을 표현한 것과 달리, 오르피즘은 '색채 변화'에 주목했는데……

2) 색이 선과 형태에 구속되어 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들은 빛의 움직임이 만드는 색 자체가 곧 형태를 이룬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선으로 그린 형태 속에 색을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색 자체로 면을 구성한 색면(色面)으로 색의 본래성을 찾으려 하였다. 오르피즘 화가들은 도시의 역동성을 표현할 때에도 형태의 묘사 대신에 색들 간의 조화나 대비에 의존하였다.

▶ **이에 따라 오르피즘은 선으로 '형태'를 그리는 대신, 윤곽선과 같은 사물의 형태를 배제하고 '색면'으로 대상을 묘사하려 했다.** '색들 간의 조화나 대비'를 활용하여 '도시의 역동성과 속도감'을 표현한 것이다.

3) 대표적인 화가 **(들로네)**는 「**창**」 연작을 통해 상징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 물질로서의 색 자체에 주목하였다. 이 연작은 창 밖으로 내다본 파리의 모습을 담았지만, 그곳에는 구상적(具象的)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고 색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색면들만 가득 차 있다. 시간에 따른 도시의 변화 양상을 분해하면 색의 파편들만 남을 뿐이라고 보고, 이 파편들을 한 화면에 동시에 담아 도시의 속도감과 역동적인 힘을 표현한 것이다.

▶ **오르피즘 작품의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다.** '구상적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형태의 묘사'를 배제했다는 점과 연결된다. 또한 색면→색의 파편이 '시간에 따른 도시의 변화 양상'을 분해한 것이라는 점은 이들이 '색채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들로네, 「창」

▶ **주목** ▶ 시간에 따른 변화상을 하나의 화면에 담아 동시성을 추구한 것은 미래주의와 오르피즘의 공통점이다[문단2-3]. 다만 이를 표현하기 위해 미래주의가 '파편화된 형태'들을 화면에 반복 나열했다면[문단2-4], 들로네는 '파편화된 색'→'색면'들을 화면에 가득 채웠다는 점에 유의하자.

문단 ④ 계시대비와 유사 보색을 통한 리듬감

1) 음악에서는 소리 자체가 주제가듯이, 들로네의 작품에는 색이 회화의 독자적인 주제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그는 주제를 형성하는 색들 간의 관계성을 중시하였다. 당시의 과학적 색채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며 서로 다른 색들이 병치될 때의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 **오르피즘 화가인 들로네의 주제 의식과 관심사이다.** 들로네는 색 자체를 회화의 주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색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다 보니, 자연히 병치 효과 같은 과학적 색채 이론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 일례로 그는 보색 관계의 색을 대비할 때 강렬하고 생동감 있는 이미지가 형성되지만 계시대비까지 고려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계시대비**는 시간 차를 두고 인접한 두 색을 볼 때 나타나는 시각 현상으로, 적색을 보고 나서 다른 색을 볼 때 적색과 보색 관계인 녹색이 그 다른 색에 잔상으로 더해져 보이는 것을 말한다.

▶ **보색 관계의 색이 감상자에게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당대에도 일반적인 상식이었지만, 들로네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계시대비'라는 효과를 활용했다.** 이는 두 색을 동시에 볼 때가 아니라, '시간 차'를 두고 볼 때 나타나는 효과다.

▶ **예컨대 왼쪽의 적색 시각형을 바라보다가 오른쪽의 노란색 시각형으로 시선을 옮기면, 적색과 보색인 녹색이 노란색에 잔상으로 더해져 연두색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즉 인접한 색의 영향으로, 색이 달리 보이는 것이다.



3) 들로네는 「창」 연작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계시대비까지 고려해] 보색의 밝기 조정으로 사실상 원색이 보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 **들로네가 자신의 작품에 계시대비를 활용한 방법이다.** 여기서 '사실상' 원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보색의 밝기를 조정하지 않고 원색을 그대로 병치할 경우 계시대비 때문에 원색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 주황색-녹색 등 **유사 보색**을 대비하여 리듬감을 만들기도

하였다. 주황색-녹색의 짝이 있을 때에 계시대비로 주황색에 [녹색의보색인] 적색이 더해져 보이고, 녹색에 [주황색의보색인] 청색이 더해져 보인다는 점을 통해 색다른 변주를 유발한 것이다.

➡ '주황색-녹색'은 '적색-녹색' 같은 완전한 보색이 아니라 '유사 보색'에 해당한다. 이 두 색이 병치되어 있을 때 주황색을 보다가 '녹색'을 보면 주황색의 보색인 '청색'이 계시대비에 의해 그에 더해진다. 그로 인해 '녹색+청색'의 리듬감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원리로 녹색을 보다가 '주황색'을 보면 녹색의 보색인 '적색'이 더해져서 '주황색+적색'의 리듬감이 발생한다[문단1-2].

문단 5 오르피즘의 의미

비교적 짧은 유행에 그쳤던 오르피즘은 한동안 현대의 도시를 다루었다는 소재적인 측면에서만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근래에는 전통 회화 기법에서 벗어나 색채를 중심에 둔 새로운 미의식을 찾는 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 오르피즘에 대한 기존의 평가처럼 소재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르피즘은 미래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문단2-1].
➡ 하지만 근래에 들어 오르피즘은 색채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찾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받고 있다.

<보기> 분석

<보기>문단

- 1) 화학자 **슈브뤼엘**은 염색 공장에서 일하면서 옷의 원색과 눈에 보이는 색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주변 색의 영향 때문임을 밝혀냈다.
➡ '슈브뤼엘'은 특정한 색에 주변 색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즉 '과학적 색채 이론'에 기여한 셈이다[문단4-1]. '주변 색의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계시대비'가 떠오른다.
- 2) 그는 물감을 섞어 색의 갖가지 주관적 인상을 표현하려 한 **인상주의** 화가들의 모습을 보고, ...
➡ '인상주의'라는 또 다른 유파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물감을 섞어 인상을 표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색면을 화면에 담아서 색들 간의 관계성에 주목한 오르피즘과는 구별된다[문단4-1].
- 3) 자연의 실제 색과 회화의 색 사이의 불일치를 없앨 목적으로 여러 색을 대비시켰을 때의 효과를 연구했는데, 이는 이후의 여러 화풍에 적용되었다.
➡ 슈브뤼엘의 연구 내용이다. 지문에서 살펴본 보색 관계의 대비나 계시대비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문단4-2].
- 4) 예컨대 물감끼리 섞으면 색이 혼탁해질 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기 인상주의 화가 **쇠라**는 슈브뤼엘의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색을 점으로 찍어 그것이 감상자의 시각 체계에서 합쳐지면서 구체적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또한 쇠라는 색감을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해 보색 관계의 두 색을 원색 그대로 병치하기도 하였다.
➡ '쇠라'가 과학적 색채 이론을 토대로 감상자의 시각 체계를 고려해 색을 병치한 것은 오르피즘과 유사하다[문단4-2]. 단, 보색의 밝기를 조정한 들로네와 달리[문단4-3] 쇠라는 보색 관계의 두 색을 원색 그대로 병치했다.

∴ 들로네가 보색의 밝기를 조정한 이유는, 가령 적색-녹색을 병치하면 계시대비로 인해 적색을 보다가 녹색을 보면 적색의 보색인 녹색이 더해져 보여 색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보색 관계의 두 색을 원색 그대로 병치하면, 색이 달리 보이게 된다. 따라서 ③번 선지가 적절하다.

[22~27] 고전시가

(가) 「고산구곡가」

- 이어 -

수록 지문 평가

총 10수로 된 연시조이다. 작가는 고산구곡에 은병정사(隱屏精舍)를 짓고 자연을 벗하여 스스로를 수양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삶에 담긴 마음이 집을 「고산구곡가」로 표현했다.

제 1수

고산구곡담(高山九曲潭)을 사람이 모르더니

→ 고산의 아홉 굽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모르더니

주모 복거(誅茅卜居, 잡풀을 베고 집터를 잡아 살아감)하니 벗님네 다 오신다

→ [내가] 풀을 베고 터를 잡아 살고 있으니 벗님들이 다 찾아오는구나.

어즈버 무이(武夷,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가 후학을 가르친 무이산을 가리킴)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 주자를 본받아 따름)를 하리라

→ 아, 무이산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주자를 생각하고 본받아 따르겠노라.

➡ <제1수>는 이 작품에서 서사에 해당한다. 고산구곡담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곳에 정착하니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니 무이산에서 제자를 양성하던 주자를 상상하면서, 자신도 고산에서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제 2수

일곡(一曲)은 어디메오 관암(冠巖, 갓처럼 생긴 바위)에 해 비친다

→ 첫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 [바로 관암이다.] 관암에 해가 비친다.

평무(平蕪)에 안개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 잡초 우거진 들판에 안개 걷히니 멀리 있는 산이 그림 같구나.

송간(松間)에 녹준(綠樽, 좋은 술이 담긴 술동이)을 놓고 벗 온 양 보노라

→ 소나무 사이에 술잔을 놓고 벗이 찾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노라.

➡ '일곡'은 '관암'이다. <제2수>는 관암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벗과 함께 누리는 풍류를 그리고 있다.

제 3수

이곡(二曲)은 어디메오 화암(花巖, 꽃이 핀 바위)에 춘만(春晚)커다

→ 두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 [바로 화암이다.] 화암에 늦봄이로구나.

➡ 화암에 꽃이 핀 늦봄의 풍광이 떠오른다.

벽파(碧波,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로 보내노라

→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 세상으로 보내노라.

➡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도연명의 시 「도화원기」의 내용과 연관되어, 꽃잎을 시냇물이나 강물에 띄워 흘러보내는 행위는 이상향을 속세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사람[→ 속세 사람들]이 승지(勝地, 경치가 좋은 곳)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 사람들이 이렇게나 경치 좋은 곳을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 화자는 자신이 지내는 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한다. 물론 화자가 원하는 것은 '승지'가 있음을 알리는 것만이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학문과 수양에 힘쓰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제 7수

육곡(六曲)은 어디메오 조협(釣峽, 낚시하는 골짜기)에 물이 넓다

→ 여섯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 [바로 조협이다.] 조협에 물이 넓다.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고

→ 나와 물고기 중 누가 더 즐기는가.

▶ 물고기도 자연을 즐기고 있고, 화자도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낚실탄을 드리우고 있지만 굳이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긴다는 점에서 서로가 다르지 않다.

황혼에 낚대를 메고 대월귀(帶月歸, 달빛을 받으며 돌아옴)를 하노라

→ 해 저무는 때에 낚실탄을 메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오노라.

▶ '조협'의 자연을 즐긴 후 낚실탄을 메고 달빛을 받으며 돌아오는 풍류를 표현하고 있다.

제 8수

칠곡(七曲)은 어디메오 풍암(楓巖, 단풍 든 바위)에 추색(秋色) 좋다

→ 일곱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 [바로 풍암이다.] 풍암에 가을빛이 좋구나.

청상(淸霜, 맑은 서리)이 얹게 치니 절벽(絶壁)이 금수(錦繡)로다

→ 맑은 서리가 얹게 내리니 절벽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

▶ '단풍'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늦가을에 절정을 맞는다. 풍암의 나무들에 든 단풍의 빛깔이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것이다.

한암(寒岩)에 혼자 앉아 집[→ 인간사]을 잊고 있노라

→ 찬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어버리고 있노라.

▶ 바위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잊고 풍암의 가을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28~30] 현대시

(가) 「발열」

— 정지용 —

작품 평가

고열로 신음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려 낸 작품이다. 그 절절한 감정이 어떤 식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주목하자.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포도(葡萄) 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여름의 적막한 밤],

가물음 땅[→ 열이 끓는 아이의 몸]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

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영탄적 어조]

▶ 열이 끓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심포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운율감을 주는 한편, 아이의 병세로 인한 시인의 긴장되고 초조한 심리를 부각하는 효과를 지닌다.

가쁜 숨결을 드내쉬노니, 박나비처럼,

▶ '박나비'는 나방의 일종으로, 밤에 등불로 달려드는 습성이 있다. 열이 내리지 않는 상황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 떠오른다.

가녀린 머리, 주사[→ 한방에서 쓰는, 열을 내리는 약재] 짙은 자리에, 입술을 붙이고

나는 중얼거리다, 나는 중얼거리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다신교도(多神教徒)와도 같이.

▶ 온갖 신에게 아이가 낫게 해 달라고 빌었다는 뜻이다.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애처롭게] 보채노나!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아득한 하늘에는

▶ 하늘이 멀어 보인다. 절망감과 더불어, 자신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야속함도 담겨 있을 것이다.

별들이 참별 날으듯 하여라.

▶ 눈에 눈물이 맺혀 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도 괴로운 마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 하늘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게 읽더라도, 내면의 괴로움과 혼란이 드러나는 구절이다.